



문의처

공익재단법인 오키나와현 문화진흥회
(우)901-0152 오키나와현 나하시 오로쿠 1831-1 오키나와산업지원센터 6층 605
098-987-0926(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17시)
info@okicul-pr.jp

사진 제공: 국립극장 오키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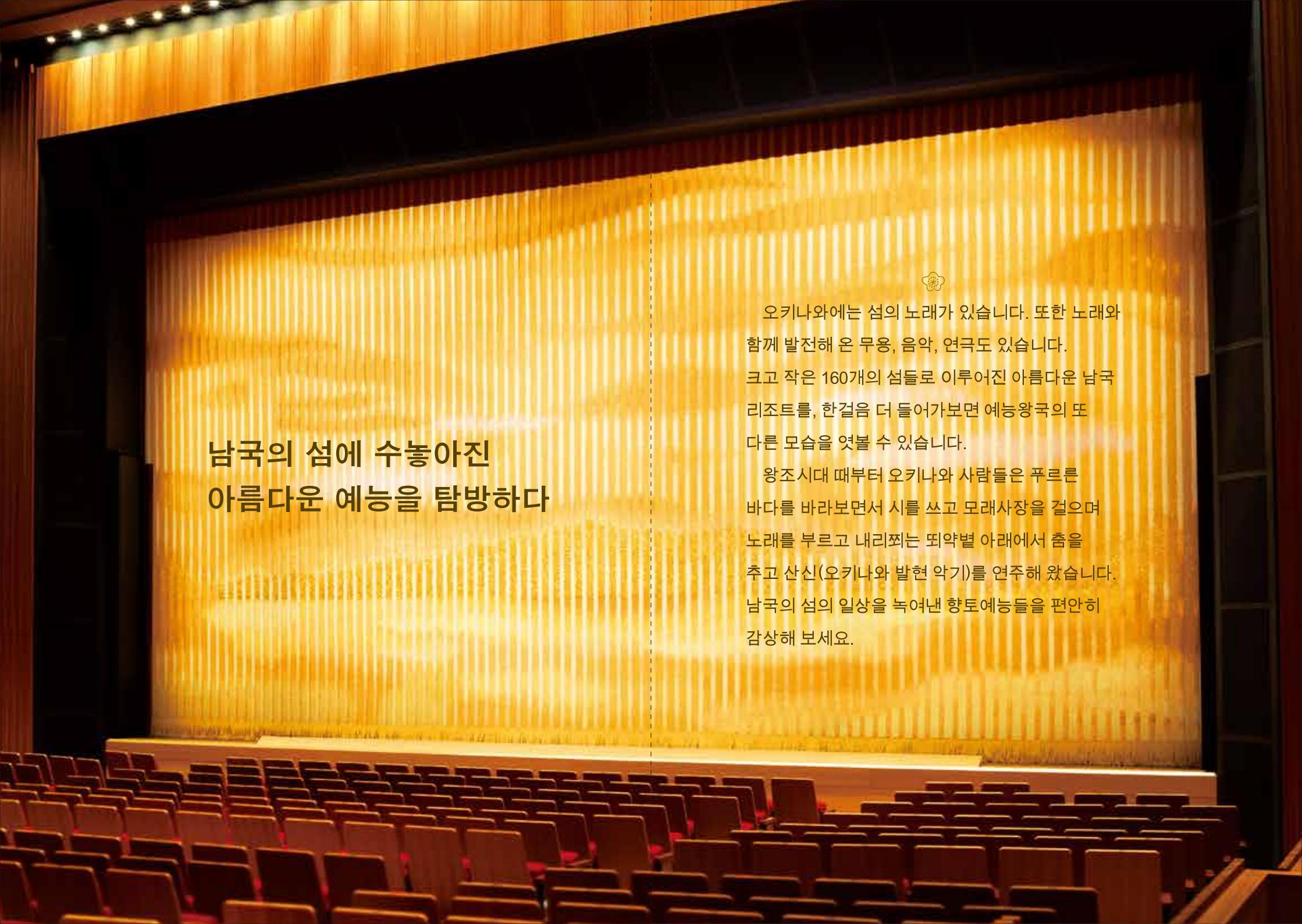


오키나와 향토예능 가이드 북

보는 재미, 즐거운 감동,
오키나와 향토예능!



공익재단법인
오키나와현 문화진흥회



남국의 섬에 수놓아진 아름다운 예능을 탐방하다



오키나와에는 섬의 노래가 있습니다. 또한 노래와 함께 발전해 온 무용, 음악, 연극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160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남국 리조트를, 한걸음 더 들어가보면 예능왕국의 또 다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왕조시대 때부터 오키나와 사람들은 푸르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시를 쓰고 모래사장을 걸으며 노래를 부르고 내리쬐는 띠약볕 아래에서 춤을 추고 산신(오키나와 발현 악기)를 연주해 왔습니다. 남국의 섬의 일상을 녹여낸 향토예능들을 편안히 감상해 보세요.



고전예능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된 구미오도리(組踊), 고전에서 창작에 이르는 폭넓은 류큐무용, 화려한 무대를 음색으로 채워주는 산신음악. 류큐왕조시대에 꽃피운 궁중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계를 매료시키는 왕조의 춤과 선율

• 구미오도리(組踊)

류큐왕조시대 18세기 초에 다마구스쿠 초군(玉城朝薰)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프로듀서가 되어 중국의 사신(삿포시)들을 환대하기 위해 창작한 가무극입니다. 류큐의 역사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70여 점의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구미오도리는 노가쿠와 가부키 등과 함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이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되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고전예능으로서 세계 각국의 방문객들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 류큐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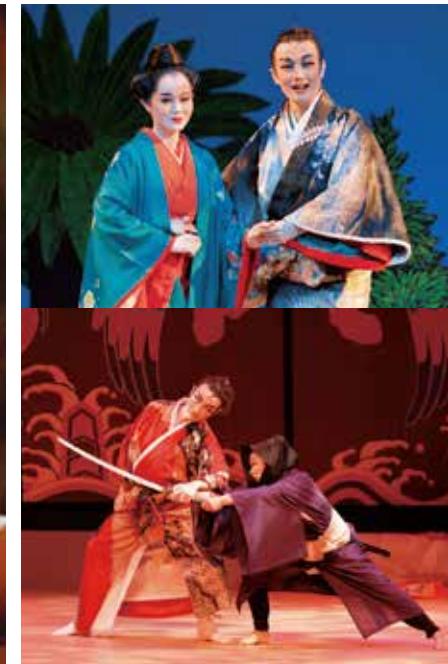
구미오도리(組踊)가 완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류큐왕조의 궁중예능으로서 발전해 왔습니다. 무용의 종류로는 빈가타 의상과 우아한 몸짓으로 관객을 매료시키는 온나오도리(女踊)를 비롯하여 와카슈오도리(若衆踊), 로진오도리(老人踊), 니세오도리(ニ才踊)가 있습니다. 메이지시대 이후에는 전통적인 고전무용이 계승되는 한편, 서민층에서도 성행하였고 서민들의 생활과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한 조오도리(雜踊)가 류큐무용의 새로운 스타일로 자리잡게 됩니다.

• 고전음악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음악이라고 하면 일본 전국적으로 유명한 노래산신입니다. 8·8·8·6의 음수율을 지닌 '류카(琉歌)'의 리듬으로 가사를 만들고 '군운시(工工四)'라고 하는 오키나와의 독특한 악보에 따라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구미오도리(組踊)와 류큐무용의 무대에서는 노래산신 외에도 거문고, 피리, 호궁, 북 등의 반주악기도 등장합니다. 오키나와의 향토예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중에게 사랑 받아온 예능문화가 자손대대로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규본 명절에 등장하는 에이사,
메이지시대 이후에 성행한
우치나구치(오키나와 사투리)로 하는 오키나와연극.
시대를 초월하여 사랑 받는 예능문화는 서민들의 생활과
감정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 에이사

오키나와의 규본 명절 마지막날(음력 7월 15일) 선조들에게 제사 지내기 위한 넌부쓰오도리(念仏踊)입니다. 노래산신의 선율에 맞추어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동네를 행진합니다. 지금은 청년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지역에 따라 춤과 의상이 다채롭습니다.

◆ 오키나와연극

오키나와연극이 탄생된 것은 메이지시대 중반 무렵입니다. 서민의 생활과 비애를 그려서 노래로 대사를 표현하는 '가극'과 시대극을 중심으로 생활 사투리에 가까운 대사로 연기하는 '방언 대사극'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도 대중 연극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며, 각 극단들이 '어머니의 날'에 올리는 특별공연은 해마다의 연례행사입니다.

◆ 시시마이(獅子舞)

오키나와에서는 예로부터 사자는 액막이의 상징이며 풍년제 등에서 시시마이(獅子舞)가 공연됩니다. 데이고나무로 만든 사자머리와 바쇼나무의 섬유로 만든 몸통은 오키나와 특유의 소품입니다. 춤추는 모습 또한 위엄 있고 역동적입니다. 현재도 오키나와 각지에는 많은 시시마이(獅子舞)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 민요

일상생활 속에서 탄생된 민요는 섬과 지역 별로 다양하며 서민들 사이에서 불리우며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각 지역 고유의 방언으로 되어 있는 가사에서 독특한 정서와 향토성까지 느껴집니다. 메이지시대 이후가 되자 산신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스타일이 주류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노래가 활발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新 芸能

신예능

시대의 풍미를 느끼게 하는뉴 웨이브

구미오도리(組踊)와 에이사에도 새로운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최첨단의 기술을 도입시켜 보는 이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신작·창작들이 끊임없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 구미오도리(組踊)

음악과 연출 방법에 독창성을 더하여
새로운 지평을 연 구미오도리(組踊)
스타일입니다. 대사·춤·음악의 세 요소로
구성된 구미오도리(組踊)의 기본률은
따르면서도 작품의 제재는 자유롭습니다.
아이들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주변
주제에서부터 역사·판타지에 이르기까지
야심찬 작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창작에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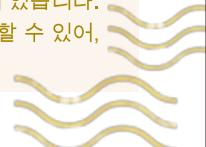
전통적인 에이사를 기본으로 안무와
음악을 자유롭게 구성한 새로운 스타일의
에이사입니다. 오키나와뿐만 아니라
타지역·해외에까지 창작에이사 동호회가
만들어질 정도이며 매년 열리는
'세계 에이사대회'에 많은 팀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로서
오키나와 향토예능을 알리고 있습니다.

• 신오키나와예능

고전뿐만 아니라 신작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오키나와연극. '우치나 야마투 구치'라고
하는 오키나와풍 암마토말(표준 일본어)로
대사를 구성한 코미디, 고전음악과
바이올린을 즐길 수 있는 가무극, 현대음악과
댄스 연출을 가미한 '현대판 구미오도리(組踊)'
등 나이에 상관없이 초보자들도 즐길 수 있는
작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역들은 지역의 중고교생. 현대판 구미오도리(組踊)의 매력

2000년에 첫 공연을 한 '기무타카의 암마와리'를 계기로 새로운 오키나와
향토예능으로서 정착한 현대판 구미오도리(組踊)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작품의
무대가 되는 해당지역의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무대에 서는
배우팀, 공연장 분위기를 띠워주는 음악과 댄스팀, 무대 뒤의 스태프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대 경험은 아이들이 스스로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매력을 발견할 수 있어,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音楽 織物

음악·직물

오키나와 향토예능을 빛내주는 명품 조연들

독특한 음계를 연주하는 산신 등의 악기,
빈가타를 비롯한 전통의상은 오키나와
향토예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산신(오키나와 발현 악기) · 음악

류큐왕조시대, 오키나와 전쟁 등 섬과 세월을 함께 보낸 산신은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마음의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목제의 몸통 양쪽 면에 니시키 벤가죽을 붙이고 긴 대에 친 세 개의 줄을 물소 뿔로 만든 픽으로 퉁겨서 연주합니다. 에이사에서 많이 등장하는 시메다이코(일본의 전통복)와 횡적(피리의 일종) 등도 오키나와 음악의 독특한 리듬과 정서를 표현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악기입니다.

빈가타(紅型)

오키나와의 대표적인 염색기법입니다. 일본 본토에서도 유명한 '가타에조메(型絵染)'의 방법이며 어떤 복잡한 문양도 형지 한 장이면 염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류큐왕조시대는 사족 계급 이상만이 입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색상이 화려하며 섬세한 문양의 기모노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전통의상 외에도 티셔츠, 가방 등 소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 오키나와 관광컨벤션부로

가스리(絣)

가스리란 여기저기에 스친 듯한(일본어로 가스리) 잔무늬를 짠 직물을 말합니다. 앞서 염색해 둔 실을 세로와 가로로 엮으면서 정해진 도안으로 짜가는 것입니다. 가스리는 예로부터 일본 전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원래는 류큐 가스리가 뿐이라고 합니다. 가스리 제품은 지금도 인기가 있고 관광기념품으로도 선호도가 높습니다.



촬영협조: 류큐가스리 사업협동조합

구루치노모리 100년 프로젝트 in 요미탄

미야자와 가즈후미 씨 등이 발기인이 되어 2012년부터 요미탄촌에서 시작한 '구루치노모리 100년 프로젝트'. 구루치란 산신의 대를 만드는 흑단나무를 말하는데, 재질이 딱딱해서 쉽게 훠거나 뒤틀리지 않아 최상의 재료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오키나와에서는 거의 채취할 수 없어 해외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100년 후에 오키나와 현산 흑단나무로 된 산신 제작을 목표로 매년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